중·고

대건총동창회보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제 41호 2015년 9월 30일 / 발행인 : 신기옥 / 발행처 :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 www.daegungo.net / 편집인 : 김용기(30회) · 정우용(32회) Tel. 053)638-6860

평사리 부부송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하는 "부부송"입니다. 소설 "토지"의 주인공 서희와 길상의 사랑처럼 나란히 서 있는 하동 "평사리 부부송". 보리가 익어가고 섬진강에서 안개가 올라오든 어느 날 새벽에 촬영한 악양 들녘의 모습입니다.

석담 도일중 동문(고 28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경운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사진전공 ▶한국사진작가협회 홍보간사

내년 대건 개교 70주년…백준호 동문 흉상 건립 등 기획 다채

(우리나라 최초의 산악의사자)

대건중고 총동창회(회장 신기옥)는 내년의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로 최초의 산악의사자 백준호 동문의 추모흉상을 건립하고 지역민과 학부모, 교사,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범 지역적 행사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산악의사자 고 백준호 동문의 추모흉상을 건립키로 하고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동창회는 이 기금 모금을 위해 고 백동문의 동기회인 35기 동기회에서 3백만원을 기부하고 각 선후배 기수들이 각각 20만원씩, 그리고 대건고 OB산악회에서 2백만원을 지원해 모교에 추모흉상을 건립하게 된다. 또 신기옥 총동창회장도 개인적으로 특별성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이와 함께 모교와 공동으로 내년 9월 16일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주민초청행사는 물론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행사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졸업생, 재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대형 윷놀이 대회를 열어 '대건' 이란 울타리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뜻있는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건중고등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명실상부한 명문학교의 위상을 갖추었음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개교 70주년 행사는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모교 교훈인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각박해져가는 현 사회를 계몽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총동창회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모교가 위치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역민들의 초청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문화행사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후배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1박2일 캠프행사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참여시켜 재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이마를 맞대고 대화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향후 재학생들이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동창회는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이가 참여하는 대형 윷놀이 행사 등으로 기획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도전하는 진정한 인간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기옥 총동창회장은 "내년 2016년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대건학교가 최고의 명문학교 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9기 동기회 졸업25주년 은사의 밤

11월14일 오후 6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39기 동문들이 졸업 25주년을 맞아 동기간 우애도 다지고 학창시절 은사를 찾아뵙는 '은사의 밤'을 오는 11월14일(토요일) 오후 6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호텔 라온제나 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은사의 밤 행사를 위해 39회 동문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학 당시 하지명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25년 전으로 돌아가 학창시절을 되뇌이게 된다. 또 39기 동문들은 은사의 밤 행사를 계기로 동기회의 활성화에 함께 동참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삼삼오오로 동기 찾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39회 동기회는 7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천만원을 모금했다.

39기 동기회는 동기들의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 회장 문준영 (010)3562-3972, 준비위원장 김학준 (011)546-8696, 총무 이장우 (010)8547-5873.

양심과 정의와 사랑으로!

제37회 대건가족 체육대회 10월11일 모교 운동장

대건동문 가족들의 축제의 마당인 대건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1일(일요일) 오전 10시 월성동 모교교정에서 '양심과 정의와 사랑으로' 란 슬로건을 내걸고 성대하게 개최된다.

대건중고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33회 동문들이 주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동문과 동문가족들이 대건인으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긍지를 갖게 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대회 개막식은 입장식을 시작으로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그리고 축사 및 격려사가 이어지고 주관기수의 모교 장학금 전달과 지난해 종합우승 기수인 35기의 우승기 반환, 그리고 처녀출전 기수인 44기의 선수대표 선서로 진행된다.

선수대표 선서 후에는 입장식 최다 참가 기수상과 44기 동기회에 최초 참가 기수상을 시상한다.

이어 주관기수 안치홍 회장(고 33회)-차기주관기수 박순보 회장(고 34회)-처녀출전 기수 정혁재 회장(고 44회)-총동창회장 순으로 성화봉송이 있을 예정이다.

아반테 승용차를 대상 경품으로 내건 33기 동기회는 풍성한 경품은 물론 가수 조항조를 비롯 33기 동문인 김세현 동문이 이끄는 '김세현과 좋은 친구들' 이란 보컬 그룹, 그리고 42기 동문인 가수 백현우가 출연해 특별공연이 있게 된다.

이날 대회는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로 나눠 진행되고 단체 종목으로 족구, 단체 매트 배구, 단체 줄넘기, 대형 윷놀이 등 4개 종목이며 개인 종목으로는 골프 어프로치, 고무신 발로 멀리 던지기, 맥주 빨리 마시기가 준비되어 있다.

동문들이 동반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모교 운동장에 어린이 놀이동산 에어 바운스를 설치, 자녀들이 지겨움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후 3시 강당에서 열릴 '단합의 시간' 행사에는 동문노래자랑이 펼쳐지며 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프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종합 우승 기수에게는 50만원, 종합 준우승은 30만원, 3위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또 각 경기별 우승팀 기수에게는 3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준우승팀 기수에게는 2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부상으로 수여되며 최다 참가상은 1위가 100만원, 2위가 50만원, 3위가 30만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 각 종목별 참가자 전원에게 텀블러를 제공한다.

10월 11일 모교에서 만납시다

제37회 대건가족 체육대회
장소: 월성동 대건고 운동장
연락처: 053)638-6860

총동창회, 뜻이 있는 후배에 길 열어줘

2명의 재학생 위해 졸업경비 대납

총동창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올해 초 졸업한 64회 졸업생 중에는 자사고 입학 당시에 생활이 괜찮았지만 도중에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파탄으로 등록금, 급식비, 보충수업비, 기숙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기숙사에서 퇴실 조치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다는 학교측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총동창회는 2명의 학생이 800여만원을 미납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지불하지 못한 금액을 전액지원,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총동창회는 추운날씨에 접근성이 불편한 모교의 위치에 고생한 학생을 생각하여 즉시 기숙사에 복귀 시키도록 조치했으나 자존심 문제로 학생들은 사양하였다.

성적이 우수하고 표정과 성격이 밝았던 2명은 모두 경북대 4년 전면 장학생이 되었고 진학후 총동창회를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동창회 최유일 사무처장은 "어른 모습으로 찾아온 이들과 소주잔을 나누면서 졸업직전 두 명 다 첫 술잔을 받았다며 찡그리며 마시던 모습이 이제는 맑은 표정의 성인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보고 흐뭇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중 한명은 7~8월 더운 여름날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으로 또 다른 한명은 9월의 경북대 오케스트라 발표회를 위해 땀을 흘리면서 나름대로의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총동창회,군위군서 경노사상 실천

농어촌 공사 지원받아 다양한 봉사

대건중고 총동창회(회장 신기옥)은 오는 11월 24일 경북 군위군 노인들을 위한 봉사행사를 마련, 경노사상을 실천하게 된다.

대건중고 총동창회는 전국 동창회 중 처음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받아 모교 19회 김영만 동문이 군수로 있는 군위군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미용 봉사행사는 물론 장수 영정사진 촬영, 돋보기 안경 증정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교 중학교 재학생 오케스트라가 이들 노인들을 위해 옛 추억의 노래 수곡을 연주, 추억을 되살리며 젊은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노인용양말과 지팡이 등의 푸짐한 선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말 농어촌 공사의 지원 정보를 입수한 동창회 사무처에서 지난 3월 접수 첫날 신청하여 1천여개 희망 단체중 2백여개 단체를 뽑는데 본 동창회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의 고교총동창회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순연되었다.

총동창회 제64차 정기총회 300여 동문 참석 성황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3일 제64차 정기총회를 수성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1회 동문선배 6분이 처음으로 참석해 활기찬 동창회의 활동을 격려했다.

총동창회 동정

1회 선배님 인사 방문

지난 4월 18일 1회 동문 선배님들의 모임인 건일회 여섯 분을 모시는 행사가 열렸다. 신기옥 총동창회장은 건일회 여섯 분을 찾아 뵙고 점심식사 대접을 하며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속 동창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며 건일 회원들께서는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초청식당은 수성구 소재 한정식 안압정이었다.

1회 동문 선배님 대부분은 재학중 6.25 참전용사로 대부분 징병으로 참전, 많은 분들이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하신 분들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재경 1회 류병추 동문 선배님은 장사상륙작전 전우회 회장으로 TV에 출연하시기도 한다.

총동창회 등반대회

지난해 11월 9일 총동창회 주관(등반회장 노중암 고 20회)산행이 대구 앞산에서 개최되었다. 약 130여명이 참석한 산행은 하산 후 식당에서 뒷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교발전 방안 모색

지난 4월 6일 4개학교 (대건중.고, 효성중. 고)에서 재학 중인 동문 교사들과 최유일 사무처장이 마주앉아 모교의 발전방안과 동창회 지원 방법을 의논했다.

달서구 소재 식당에서 동문교사들의 관심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므로 협조를 당부했다.

동기회 대표 간담회

총동창회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37회~43회 대표 간담회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막걸리집 진골목에서 열렸다. 모든 기수에서 참석하여 많은 시간동안 즐거운 대화를 가졌다. 44회, 45회의 동창회 참여 독려 및 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 모임을 모체로 37~43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44회의 창립총회를 적극 유도하였고 45회, 46회 동기회 창립총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모교 등반팀 격려

지난해 11월 7일 60KM 전국학생 등반대회 출정식을 갖고 우승을 다짐하는 모교 고등학교 등반팀에게 닭고기와 음료수를 제공하며 격려했다.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총동창회는 2015년 신년교례회를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모교 안드레아관 3층에서 개최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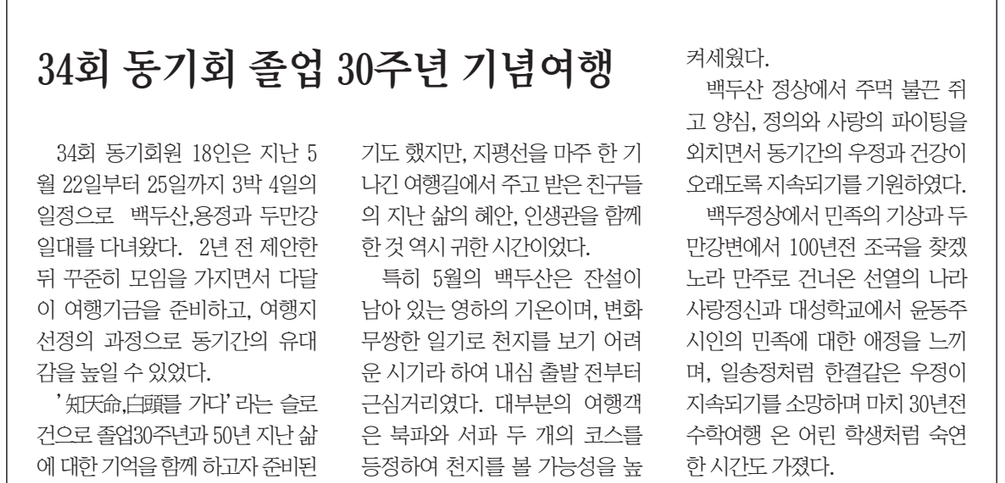
이날 참석한 180여 동문들은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내려지길 덕담을 나누었다.

모교, 동창회 유대강화

11월 18일 모교 부근 월성동 중국집에서 고등학교 이두영 교장. 중학교 서명수 교장. 윤호일 고등학교 행정실장. 최유일 동창회 사무처장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교 재학생과의 교류

모교에 전통이 있는 동아리인 산악부. 태동기. 농구부에게 연말이 되면 동창회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동창회와 동문선배의 사회적 활동을 소개하는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11월 11일에는 태동기 회원 18명과 지도교사2명, 12월17일에는 산악부 15명과 지도교사 3명, 12월31일에는 농구부 16명과 지도교사2명과 함께 했다.



백두산서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다

34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여행

34회 동기회원 18인은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백두산,용정과 두만강 일대를 다녀왔다. 2년 전 제안한 뒤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다달이 여행기금을 준비하고, 여행지 선정의 과정으로 동기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知天命,白頭를 가다' 라는 슬로건으로 졸업30주년과 50년 지난 삶에 대한 기억을 함께 하고자 준비된 행사였다.

대구지역의 동기회원을 중심으로 부산, 진주, 감포 그리고 서울의 동기들이 함께 한 이번 여행은 30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주벌판을 달리며 지난 선조들의 역경과 고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지평선을 마주 한 기나긴 여행길에서 주고 받은 친구들의 지난 삶의 혜안, 인생관을 함께 한 것 역시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5월의 백두산은 잔설이 남아 있는 영하의 기온이며, 변화무쌍한 일기로 천지를 보기 어려운 시기라 하여 내심 출발 전부터 근심거리였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북파와 서파 두 개의 코스를 등정하여 천지를 볼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짧은 여행기간으로 서파만 선택한 이번 여행은 더욱 천지를 마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3가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는 일행이 등반한 날 그 어느 때 보다도 맑은 하늘과 날씨를 허락하여 서로가 '네 덕이라고, 친구 공덕이다' 라고 추켜세웠다.

백두산 정상에서 주먹 불끈 쥐고 양심, 정의와 사랑의 파이팅을 외치면서 동기간의 우정과 건강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하였다.

백두정상에서 민족의 기상과 두만강변에서 100년전 조국을 찾겠노라 만주로 건너온 선열의 나라사랑정신과 대성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의 민족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일송정처럼 한결같은 우정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마치 30년전 수학여행 온 어린 학생처럼 숙연한 시간도 가졌다.

비록 짧은 3박 4일의 일정이었으나 2년을 함께 준비해온 과정, 여행 중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앞으로 30년간 동기간에 회자되는 즐거운 기억이 될 것이다.

여행을 다녀 온 친구들은 해단식에서 다시 3년후를 기약하였다. 바이칼 호수!

“대건인이여! 양심·정의·사랑을 실천하자”

제36회 가족체육대회 화보

지난해 10월12일 32기가 주관한 제36회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2천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 모교 교정에 모여 동문들의 일체감을 재확인했다.

이날 대회는 어느 해보다 어린 자녀들이 함께해 가족체육대회의 이미지를 물씬 풍긴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과감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채로운 경기와 행사, 푸짐한 경품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졌고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동문가족들의 모습이 동화속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청, 중, 장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게임은 각 기수별 자존심을 걸고 땀 흘리는 형과 아우간의 태도는 진지하기만 했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선후배간의 미덕을 연출한 이번 대회는 대건인의 참모습을 보는 듯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35기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화기애애했던 대건인들의 축제마당이었던 제36회 체육대회를 화보로 엮어본다. (편집자주)

가족체육대회를 맞이하며

전통으로의 동참

33기 동기회장 안치홍

먼저, 제37회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체육대회 행사의 주관을 맡은 대건고등학교 33기 동기회장으로서 여러 선후배 동문들을 모시고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어 가슴 벅찹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저희 33기 동기회가 올해 초,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에만 해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37회 동안 이어온 이 전통을 우리들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후배들에게는 믿음직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33기 동기회 내부의 갈등과 단합은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함이 당연한 것이듯,

같은 동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33기 동기회는 18년 전, 동창회의 막내로서 대건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의 보살핌으로 오늘 이렇게 체육대회 주관기수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후배간의 아름다운 전통에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선배들의 노력에 누가 되지 않고 후배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제 37회 대건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3기 동기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 있습니다.

34년 전, 빡빡머리 천방지축 철부지들로 만나서 불과 3년이라는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지만, 평생 가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반가운 친구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삼삼오오 모이는 동기들을 찾아다니며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이번 체육대회 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33기 동기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우리 33회 동기회가 다시 한 번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33기 동기들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동문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매년 이렇게 대건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를 주최하시는 총동창회장님 이하 총동창회 임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전 동문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故 백준호 동문 흉상 건립 모금 운동

고 백준호 동문은 대건중33기이자 고35기로 졸업했으며
2004년 히말라야 실종자를 구조하다 사망, 최초 산악 의사자
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총동창회는 고 백동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기려 흉상을 2016년에 건립합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12-0089-3217-51(예금주:대건총동창회 신기옥)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오”

28기 동기회 59명의 진솔한 인생과 삶 담았다
‘55세 고교 동기들의 58가지 인생이야기’ 발간

3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교정의 울타리에서 사춘기를 보낸 동기들이 37년 동안 서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55년이란 인생살이에서의 경험담을 엮은 의미있는 책을 28회 동기회가 발간했다.

‘55세 고교 동기들의 58가지 인생이야기’란 제목의 이 책자는 무엇보다 사회서 유명도가 있는 동기들의 참여는 배제하고 자신의 일만에 충실하며 삶을 엮어가고 있는 동기 59명의 인생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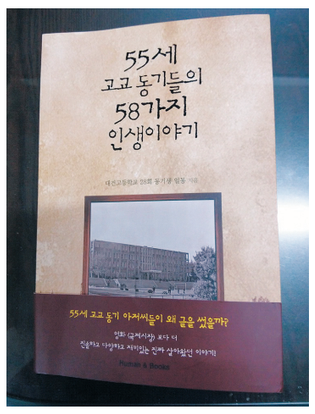
“정말 순수하다.”, “정말 우리 삶의 그대로를 말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과 너무나도 동질성을 가지게 한다.

총 435쪽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얼마전 1백만 관객을 넘어 우리 40대 중반 이후의 관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영화 ‘국제시장’보다 더 진솔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진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엮었다.

이 책을 엮은 문학평론가인 28기 하응백 동문은 서문에서 친구들의 글을 읽고 편집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문학평론가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동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하 동문은 세련된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심이 전달되어서 독자들이 자극하는 것이 진정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 글을 쓴 59명의 동문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자칭 노가다를 비롯해, 의사나 변호사, 국숫집 사장 같은 자영업자들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친구도 있고 명퇴를 하고 노는 친구들도 있으며



사업이 힘들어져 쉬는 친구들이다. 이들이 쓴 글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55세 장삼이사의 평범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진지하고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8기 동기회는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우리들의 자식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의 살아왔던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 주고픈 순수함 그대로의 목적이다.

이 책은 제1부 아버지의 화투, 제2부 우리는 짐승처럼 일했다. 제3부 젊은 날의 노트로 나뉘어 편집되어 있다.

아버지의 화투에는 이기홍, 유강근, 장오재, 조용호, 이상희, 정원일, 이구태, 양재우, 송희덕, 김윤섭, 방선택, 박창기, 이승형, 이원석, 이상근, 임준형, 장동환, 이준, 오정현 동문이 참여했고 우리는 짐승처럼 일했다에는 백성목, 서효석, 이호용, 장삼철, 이현우, 김종천, 김창규, 곽동호, 권재배, 김원희, 노재호, 류태규, 석진보, 양창근, 이희종, 박범환, 이담, 정재호, 성두경 동문이 글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젊은 날의 노트에는 이상춘, 이도희, 이철락, 진중득, 이춘희, 전경수, 김긍재, 김대현, 김동혁, 김영환, 박득채, 석태문, 김수윤, 설기영, 심진완, 안치오, 이수형, 채명관, 최대순 동문이 참여했다.

미국문화탐방 일행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지켜줘서 고마워요”

제2차 미국 문화탐방행사 …아진US 매년 재학생 파견

동창회 장학회가 주관하고 ㈜아진산업 대표 서중호 동문(고 27회)이 후원하는 제2차 아진US미국문화탐방 행사가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테니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미국문화탐방행사에서는 특히 체임버스 마운티의 한국전 참전자 18명의 부부동반을 조지아주 포인트대학내 식당에 초청,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켜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탐방행사 참가자들은 참전자들에게 서중호 동문의 감사패 전달, 동창회의 기념품 전달, 학생대표의 감사편지 낭독, 학생들의 합창과 오찬순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아리랑과 오수산나(oh Susanna)를 합창하자 노병과 가족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아진US, 우신US현장을 방문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조지아텍과 밴더빌트대학을 견학하고 록마운틴 암벽산과 루비폭포, 산악궤도열차를 타보고 미시시피강에서 배를 타보며 넓은 가슴이 미래를 향하는 꿈을 담아보고 엘비스프레슬리 생가를 방문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서중호 동문은 장애자 수십명을 해마다 상해 연수를 보내고 경북도내 다문화가정 300여 가구 친정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자식이 살고 있는 한국을 체험과 관광케 하고 매년 조지아주와 아틀란트주 교육관계자 20여명을 한국에 초청하며 라오스에 후생, 복지에 수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공고 졸업생 자사 취업자에게 전원 전액 대학교육을 시켜 졸업시키는 등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행문 7면)

김현기 동문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활발한 소통 행보 호평

김현기 동문(고 33회·**가운데 흰셔츠 입은 사람**)이 지난 8월 20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 부임,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김 동문은 부임이후 격식 낮춘 소통행보로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도청 7급 이하 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대구시 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걸쭉한 막걸리를 마시며 인간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점 등을 수용하기도 했다.

동문 동정

춘계등반대회 총동창회는 지난 6월7일 제11차 춘계등반대회를 청송 주왕산에서 개최했다.

23회 환갑기념 관광

지난 5월 23일 23회 동기회는 재경동기회와 대둔산 등반(**사진**)과 서해 안면도와 선유도 관광으로 환갑행사를 대신했다. 안면도에서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해변에서 밤을 맞이했으며 새벽에는 바다낚시의 즐거운 시간도 갖고, 선유도 관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재경 총동창회 총회

지난 5월 28일 재경동문회 총회가 건설회관 지하 2층의 레스토랑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진 재경회장은 총동창회와 재경동문회가 협력하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참석인원은 약 150여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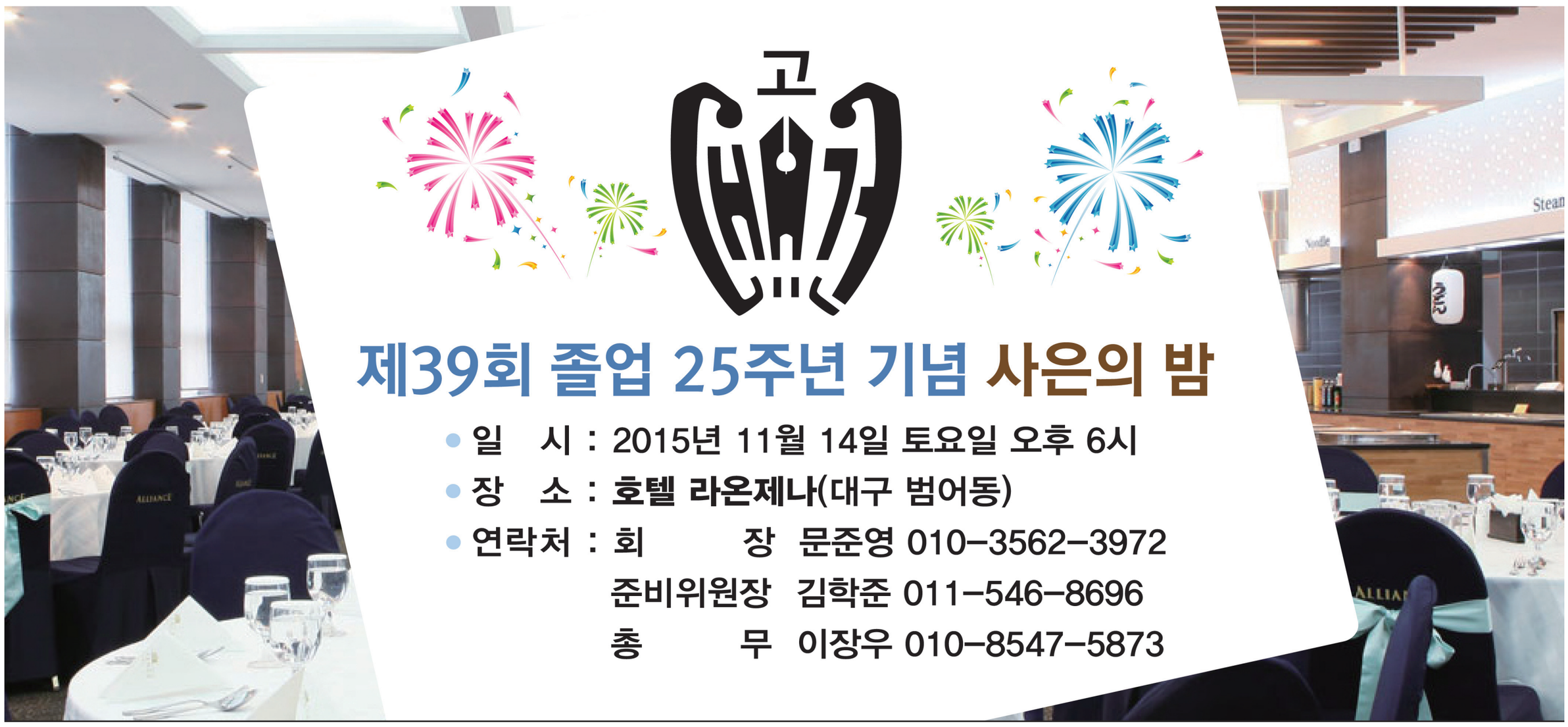
대구은행장 초청 동문 만찬

지난 6월 11일 박인규(중.19회)대구은행장이 초청으로 하는 대건 동문 만찬회가 수성구 소재 식당에서 열렸다.

신기옥(6회)동창회장, 함인석(중15회)전.경북대 총장, 권원강(18회)교촌치킨 회장, 김영만(19회)군위군수, 정현태(중17회)경일대 총장, 여창환(22회)매일신문 사장, 최유일(23회)동창회 사무처장, 김상경(24회)예비역 공군장군, 서중호(27회)(주)아진산업 대표, 곽상도(27회)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8명 모였다.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 총동창회 집행부 격려

교촌치킨 회장 권원강 동문(고 18회)은 지난 6월 9일 교촌치킨 수성점에서 총동창회 집행부15명을 초대 격려 하였다.



제39회 졸업 25주년 기념 사은의 밤

- 일 시 :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 소 : **호텔 라온제나**(대구 범어동)
- 연락처 : 회 장 문준영 010-3562-3972
  준비위원장 김학준 011-546-8696
  총 무 이장우 010-8547-5873

모교, 대한민국이 인정한 명문고

타 자사고 제치고 대구 소재 고교 가운데 최상위권 기록

모교는 2014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이상' 학력 100%를 달성하여 전국의 광역자사고 중 '학력향상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주요과목 1,2 등급의 점유율이 대구 소재 고등학교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대구 소재 4개 자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됐다.

미래인재 핵심역량(DeSeCo)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있는 모교는 입시 체제의 변화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교육 현실에 어느 학교보다도 발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및 '교육과정 학교경영 시범학교' 운영,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 프로그램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건고의 역량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들이기도 하다.

모교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는 학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모교는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과 프로그램 개발로 학교 교육의 효과성과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및 '대구경북 청소년 학술대회' 수상, '대한민국 창의력올림피아드', '대한민국 창의체험페스티벌', '틴매경 TEST 동아리 최강전',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입상 등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거둔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립에 노력하고 있는 모교는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부모가 동참하는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계발 프로그램을 시행, 학부모와 지역 사회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삼위일체 입시설명회', '부자동행 대구둘레길 걷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진로 직업 탐색의 날', '대건 스마트 부모대학' 등은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정립에 기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있는 모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역량은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 지도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건통합논술연구회(http://cafe.naver.com/tgnonsul37)'를 비롯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더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교사 전원의 동의로 2000년에 '교직원 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업에 대한 열정은 높으나 환경이 어려워 좌절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

2년 연속 전국대회 금상을 수상한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다.

수페르나 오케스트라 창단 2년만에 전국 관악경연대회 금상

모교 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인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가 전국 관악오케스트라의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는 창단 2년만인 지난해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8월 24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도 금상을 차지해 2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는 2013년에 창단, 창단원년에 같은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해 전국 관악계의 이목을 받은 바 있으며 2년 연속 금상의 영예를 수상해 이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대건중 고 총동창회 장학회(이사장 신기옥)은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의 활약을 격려하고 보다 질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길 당부하며 장학기금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백현우 동문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서 동양인 최초로 톱3 등극

백현우 동문(고 42회·**왼쪽 사진**)이 동양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커머셜 모델 톱3에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다.

가수 출신인 백 동문은 지난 6월19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머슬마니아 세계선수권대회 '2015 피트니스 유니버스 위크앤드'에서 커머셜 모델 톱3에 등극했다. 백 동문의 이번 성적은 신체적 약세로 인해 지금까지 동양인의 입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얻은 쾌거이며 아마추어로서 동양인 최초 톱3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백 동문은 선천적으로 비율과 발란스 등이 좋은 서양인들을 뛰어넘기 위해 하루 7시간이 넘는 고강도 운동과 식단관리, 워킹, 포즈연구 등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몸매 종결자' 유승옥이 동양인 최초로 톱5에 오른적 있다.

기고 리즈성형외과 원장 이동은 동문(고 34회)

'인연'

캐나다 교포 여성 첫 인중성형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 찾아 권위적 입지 다져

며칠 전 간호사가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나에게 보고했다. 인중수술을 하려고 멀리 외국에서 한국, 그것도 대구까지 온다고 한다.

"어느 나라에서 오신다고 합니까?" "원장님,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병원의 인중수술이 꽤 유명해지다 보니, 여러 나라의 교포들이 내원해서 수술을 받고 돌아가곤 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에서도 수술을 위해 내한하고 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 수술을 알아서 머나먼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제는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 비행기타고 와서 수술하고 돌아가는 일이 그다지 신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온다고 하니 내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생겼다. 이 나라에서 온 환자가 나에게 인중수술에 대한 첫 인연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봄의 일이다. 캐나다에서 온 30대 여성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고향이 대구라서 들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얼굴이 길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인중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중의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나는 당연히 그런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코 아래쪽의 흉터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술이라고 거절했다. 사실 수술결과에 나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환자 자신이 흉터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고 흉터가 심해지더라도 이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술을 거듭 간청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러 성형외과 논문과 교과서를 며칠 동안 들여다보고 참고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수술을 마쳤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인중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후 상처관리를 꼼꼼하게 하면서 좋은 경과를 유지했고, 그 후 다시 방문할 때까지 꾸준히 메일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경과를 확인했다. 2년 뒤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 흉터를 확인하니 내가 봐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결과가 좋았다. 얼굴이 수술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보이고 나이도 젊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첫 번째 수술을 시작한 이래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 이후 인중과 입술 부위의 부조화에 대한 교정방법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이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게 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수술결과도 안정되고 흉터를 별로 남기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수술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동안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인중의 길이를 줄여서 얼굴이 작아보이게, 나이가 젊어보이게 변화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보면 코 아래의 인중과 입술 주위의 모습만 보아도 비례와 조화가 잘 맞는지 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보다 좋은 얼굴이 될 것인지 저절로 감이 잡힐 정도가 된 것이다.

며칠 뒤 멀리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전화 속의 젊은 여성과 대면했다. 10년 전의 첫 인중수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쌓인 상태라서 멀리까지 찾아온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 당일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직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붓기가 채 빠지지 않았지만 어려 보이고 작아져 보이는 얼굴 모습에 만족해하는 환자를 보고 나니 나도 안심이 되었다. 아마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때쯤이면 좀 더 좋은 모습의 얼굴로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인연이 몇 차례 찾아온다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방향이 바뀔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인연은 나처럼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인연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바로 느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그런 인연이 찾아올 때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문득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애니온 Anyon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
젊음과 패기로 최적의 기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및 구축/모바일 APP개발/POP시스템/주차관리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생체인식 시스템/근태 식수관리시스템/ID-CARD/바코드시스템 및 소모품
Reference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평화정공,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표 김현진(고44회)
연락처 : (053)625-0550 , 010-4508-7301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아진산업(주)

AJIN INDUSTRIAL CO., LTD.

대표 서중호(고27회)

상해아진실업

강소아진실업

Subsidiaries

아진산업(주) 본사

아진USA

대우부품전자(베트남)

아진산업(주) 1공장

대우부품전자

(주)우신산업

OVERVIEW

당사는 자동차 차체류 전문 생산업체로서 근면성실, 창의개발, 기술배양의 사훈아래 1976년 5월 31일 설립되어 **100PPM 달성과 ISO14001, TS16949인증 획득 및 HQ9002, ISO9002 인증**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03년 M&A 당시 100% 고용승계를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디지털 경영시스템 (ERP:전사적자원 관리, POP : 생산정보시스템 SCM : 공급망 관리 , ERP :전사적지식포탈시스템)을 도입하여 21C자동차 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HISTORY

1978. 아진산업㈜ 법인설립
1981. 노동조합 설립
2005. 경북산업평화대상 대상 수상(경북도지사)
200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2006. 중국법인 상해아진실업 설립
경북중소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경북도지사)
2008. 미국법인 JOON. LLC AJIN USA 설립
사랑의 봉사단 발족(지역중증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
2009.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고용노동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정(노사발전재단)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노사협력부문(특별상 수상)
생산성향상/혁신활동 우수기업 선정(지식경제부 장관)
2009년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수상(고용노동부)
자율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대구지방고용노동청)
20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획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DNV)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지식경제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획득(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해외현장실습 MOU체결(영남대학교,대구대학교)
2011. ㈜KCO에너지 인수[㈜아진카인텍 사명 변경]
2011년도 노사파트너 지원사업 선정(고용노동부)
무재해 13배수 달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기업 연계기업 우수기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2. 열린고용리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기업(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3. 종합인증우수업체 AEO인증 달성(관세청)
일자리창출 유공자 대통령 표창장 수상

WWW.WAMC.CO.KR

제2차 미국 탐방 행사 기행문

대건고 2학년 이훈

더 넓은 세계로 ! 더 성장한 나

미국으로 가기 하루 전, 그토록 동경하고 원했던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볼 생각에 설레고 들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애 가장 긴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 땅을 밟으며 아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기다렸다.

공항에 입장하는 순간 범상치 않은 덩치의 흑인 경찰들이 모두 권총과 수갑 등을 허리에 차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고, 주위에서 영어가 막 쏟아지니 미국에 온 것을 제대로 실감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까다로운 질문을 통역까지 받아가며 무사히 통과하니 공항 출구에서 아진US직원분들이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모두 담지 못할 정도로 광활한 하늘과 따가운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고도 강렬했던 미국의 첫인상을 머릿속에 새기고, 사장님을 뵙기 위해 회사로 향했다. 아진US에 도착하자마자 직원 분들께서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인 못지않게 한국인도 속속히 보였다. 비록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를 계획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는 사장님께서 웃어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성공했다고 본다. 여행의 일정과 회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기업가의 눈으로 본 미국의 생생한 이야기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은 뒤, 산업현장으로 들어갔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을 하는 외국인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돌아다니는 우리가 일하시는데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모두 웃으면서 우리에게 인사해 주었고, 사장님과 직원 분들을 격하게 반겨주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장 일을 멀리 하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며 그 완수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니 한국과 너무 다른 사고와 마인드였지만 나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했고 부러웠다. 직업의 귀천 없이 무한 경쟁과 취업 걱정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들이 정말 멋있었고, 그 생각과 마음가짐을 진심으로 본받고 싶었다.

남을 위한 배려심 본받아야

그렇게 아진 회사의 거대한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한 뒤, 가장 중요하면서 의미 있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뵙기 위해 한 대학 내의 레스토랑에 갔다.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킨 역사속의 인물들을 대면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용사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볼 때, 실제 자신들이 치열하게 싸웠었던 절박했던 상황을 보는 그 분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분명 우리와 달랐고, 엄숙하면서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표정에 묻어났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용사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간단한 스피치를 하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연습해온 아리랑과 오 수제너를 불러드렸다. 아리랑을 부르며 실수했을 때 큰 박수로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해주셨고, 오 수제너를 부를 때는 웃으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 주셨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용사님들의 기념품을 들어드리며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귀중한 경험은 절대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다양한 관광지들을 다니며 지식을 채우고 견문을 넓히며, 미국을 온 몸으로 느꼈다. 나는 그 많고 많은 명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곳은 미시시피 강 크루즈 여행이었다. 맴피스 피라미드와 끝이 없는 미시시피 강의 아름다운 경관도 충분히 감명 깊었지만 그 더운 날 유람선 3층에서 외국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 했던 것은 나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하고 즐거웠던 경험이다. 그 분은 뉴저지에 사는 약사시며 휴가차 미국을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셨다. 비록 남한은 잘 모르지만 현다이와 북한의 김정은은 안다고 하셨을 때, '과연 현다이가 뭘까' 라고 고민하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현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외국인과 아무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5개 보기 중 하나를 택하는 수능영어가 아닌 진짜 영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꼭 내 영어 실력에 만족을 느낀 것만은 아니었다. 루비폭포안에서 한 가이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주위 외국인들은 모두 웃었지만 나만 이해하지 못해 웃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고, 영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그 때의 심정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는 미국의 외면적 모습을 서술했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의 내면적인 모습, 다시 말해 내가 느낀 미국의 문화에 대해 쓸까 한다. 내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 중 단연 최고이고 부러웠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인사를 하며 오늘 하루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오늘 어땠는지 묻게 되었다. 그런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 덕분인지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남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국에 와서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려다가 그 분이 고개를 숙이시며 다른 곳을 보는데, 그 순간 미국에서 상냥한 웃음과 함께 인사를 해 주던 분들이 생각나면서 문화의 차이를 직접 느꼈다.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거리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오히려 인사를 안 하면 무안해지는 미국의 문화를 아직까지 잊을 수 없고 정말 부럽다.

두 번째로 내가 놀랐던 사실은 미국의 추월선 차선과 긴급상황 시 미국사람들의 행동이었다. 미국에는 다른 차선의 차들을 추월하는 추월차선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일반 차선에서 추월 차선의 차를 추월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미국의 교통이 정말 깨끗하며 매우 합리적이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엠뷸런스나 구급차, 장례식장 차 등 일분일초의 시간이 소중한 긴급상황에는 그 쪽 차선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에 있는 차들까지 멈춰 긴급한 차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그 상황을 경험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멈춰 서서 차가 갈 때 까지 기다렸다. 내 기억 속에 있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니 한국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또 교차로에서는 차들이 차례대로 양보를 하면서 가는데 정말 선진국이란 것이 경제, 정지, 사회적으로 뛰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생활수준 태도 등이 선진국임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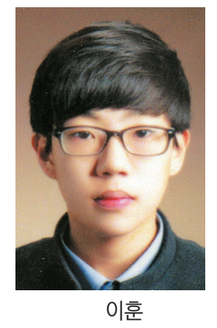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란 미국의 문화는 So What (그래서 뭐)?이다. 100kg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또는 노인들이 핫팬츠를 입는 광경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들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기에 그런 광경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직원분에게 이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여쭤보니 '한국은 눈치 보면서 언제 자기 삶을 사는지 의문이다' 라고 하셨다. 남들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제한하는 삶이 너무나 답답할 거라며 덧붙이셨다. 나는 너무나 이 말에 공감을 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여 '내가 더워서 짧은 바지를 입는데 왜 네들이 상관이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던 것이다. 분명 이러한 생각들이 남들로부터 조금 덜 불편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필요

나는 이번 미국 여행을 한 뒤, 스스로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지금의 행복을 위해 살자는 것이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나는 미국 여행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 미래에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자고 말이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자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인사해주었듯이 멀리 타국에 온 사람들을 나도 상냥하게 먼저 인사해 주어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부족해 선뜻 인사를 못 건네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목표한 대학에 입학 한 뒤, 스스로 돈을 벌든 교환학생을 가든 어떻게든 미국에 다시 가는 것이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는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모습이 눈과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너무 미국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도 처음엔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동안 지금의 불타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꼭 나의 목표를 이룩할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지원해준 서중호 선배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훗날 목표하던 꿈을 이루었을 때, 꿈과 열정이 넘치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대건고등학교 선배님과 나눈 현실적인 이야기, 법조인과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늦은 시간 호텔에서 총장님과 나눈 이야기, 차 안에서 아진 회사 직원 누나들과 선배님과 나눈 이야기 등 글로 다 풀지 못할 정도로 값지고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당장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을 정도로 아직 미국의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매일매일 미국여행을 생각하며 그 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기고 있다. 7일 동안 정말 행복했고, 더 없이 즐거웠고, 미국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평생의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 글을 마칠까 한다.



이훈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 대건중·고 총동창회 장학회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동문 한분 한분이 모여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미있는 후원금이 대건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밝은 앞날을 열어주는 불빛이 될것 입니다.

- 이사장 : 신기옥(6회) 총동창회장
- 계좌번호 : 예금주 (재)대건 총동창회 장학회
  ※국민은행 644601-04-203385
  ※대구은행 505-10-144321-7

대건중·고 총동창회 장학회
연락처 : (053)638-6860 팩스 : (053)638-6859

개교 69주년

제37회 대건중·고등학교

대건 가족 체육대회

교훈 :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 일 시 : 2015년 10월 11일 오전 10시
- 장 소 : 모교운동장(달서구 월성동)
- 주 관 : 대건중 31회, 대건고 33회 동기회
- 주 최 :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http://www.daegungo.net)

집행부

회장: 안치홍 부회장: 김태경 재무: 이동순 총무: 구근업 섭외: 김승용 공보: 김재봉
정보: 전우진

준비위원(역대회장)

위원장: 김수호 부위원장: 김순봉, 박헌식, 송병수, 배재수, 이원우, 배문호, 김도균, 김말용, 김봉준
부위원장: 김성식, 김성호, 김용연, 김준년, 김현기, 박성수, 배형원, 손수호, 안영수, 이상현, 최병찬

반별 책임자

1반: 이영석, 정진석
2반: 배재열, 김진규
3반: 권기범, 정재현, 최상일
4반: 성근산
5반: 박명호, 이장희
6반: 서성수, 강영규
7반: 김승배, 전우진
8반: 이충규, 김영식, 심상필
9반: 장원영, 정기태
10반: 서찬호, 김재학, 정은태